

갤러리팔조, 조경재 '보이지 않는 배우들' 展... '보기'에 대한 사유, 회화같은 사진을 낳다

✎ 황인옥 | ⓒ 승인 2025.12.18 21:36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기보다
보이는 것에 반응할 능력 중요"
작품철학이 된 지도교수 조언
오브제는 실제보다 크게 제작
또렷한 연출로 회화같은 효과
연출가·설치작가 활동도 왕성
"결과물보다 과정에 초점
작가 의도 명확하지 않듯
각자만의 시선으로 즐기길"



조경재 작가가 갤러리팔조 전시장에 걸린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인옥기자

선이나 면으로 구성된 날카롭거나 부드러운 오브제들이 불규칙적인 관계성으로 얹혀있다. 언뜻 보면 추상회화 같지만 실은 사진이다. 갤러리팔조 대구 전시장 벽면에 걸린 조경재 작가의 작품들인데, 얹히고설킨 오브제들은 그가 “대상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한 시각적인 설명이다.

흔히 작품을 만들 때 작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다. 하지만 조경재의 경우 질문 자체가 달랐다. 작업의 출발점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진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이 "대상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있다. "제 작업의 중심은 어떤 장면이나 이미지를 마주했을 때, 제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였는가에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한국에서의 교육 목표는 명확했다. 사진을 찍었으면 그 의미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이미지에선 의도가 있어야 했고, 작가는 의도를 언어로 책임질 수 있어야 했다. 그것이 작가로서 가져야 할 태도라고 배웠다. 조경재는 그런 교육의 결과 '잘 만든 작업'의 기준을 충실하게 정립해갔다.



조경재 작 'Hole (홀)'

작가의 의도가 이미지로 정확히 번역되는 것을 작업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의 태도는 독일 유학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독일 뮌스터대에서 마이스터슐러 과정을 거쳤다. '잘 만든' 작업 이전에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독일 유학 시기 지도교수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그의 지도교수는 조경재의 의도가 드러나는 친절한 작품을 보고 "네 작품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너무 친절해서 내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은 작가로서의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지도 교수의 평가는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하나의 콘셉트를 정해 성과를 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평생 작업을 지속하기에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도교수의 지적이었다. 지도교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는 감각, 보여 지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고 주문했고, 조경재는 그것을 계기로 ‘시각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해갔다.

독일에서 그가 배운 또 하나는 ‘좋은 전시’에 대한 개념이었다. 전시 공간을 작품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태도였는데, 작품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인식체계 형성에 대한 주문이었다. 독일의 미술 교육은 ‘좋은 작품’ 이전에 ‘좋은 전시’에 초점을 맞췄다.



조경재 작 'Gray Smoke (회색연기)'

작품과 전시 공간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독일의 예술교육은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미술공간을 경험하도록 유도했다. 학생들은 뮤지엄과 갤러리, 다양한 전시 공간에 노출됐고, 각 공간의 성격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보다, 이 공간에서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교육이었다.

독일에서 조경재는 작품을 공간에 단순하게 전시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공간, 빛, 동선,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의 성향까지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더 큰 틀에서 작품을 해석하려는 태도를 쌓아갔다. “결정된 전시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도출되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서치를 하고, 토론을 거쳐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전시를 심화해 갔어요.”

독일에서의 태도 변화는 그의 작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더 이상 거창한 오브제는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무판자, 빛, 공간의 구조, 재료의 성질 같은 것들이 작업의 중심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였다. 그는 사물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버려진 사물들을 수집해, 주제에 맞게 구성했다. 사물이 가진 원래의 용도와 의미를 지우고, 물성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상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그는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2021년을 전후로 작업은 또 한 번 변화했다. 수집이 아닌 제작으로 작업 방식을 바꿨다. 사물을 직접 만들고, 부수고, 구부리고, 색을 입히는 과정이 작업의 핵심이 됐다. 이는 ‘자연과 신체’라는 주제와 맞닿았다. 몸을 사용해 규모와 형태를 만들고, 연출적인 기법으로 설치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진으로 남겼다. 피사체를 연출하는 과정이 중요해지면서 사진은 그에게 더 이상 출발점이 아닌 결과물이 됐다.

“작업 과정의 99%가 피사체를 만드는 데 할애하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은 1%에 불과합니다.”

이 시기 그는 사진가보다 설치 작가로 더 자주 불려 다녔다. 비엔날레나 대규모 야외 설치 행사에 초대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재료를 다루는 기술과 감각은 더욱 확장됐다. 만들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표현의 범위도 넓어졌다. 그는 무대 연출가의 일도 병행했고, 설치 작업 과정에서 연출적인 효과는 극대화됐다. 무대 연출가처럼 공간을 설계하고, 직접 색을 칠하며, 오브제를 구부리거나 파손시켜 조형성을 부여했다.

이번 전시 제목 ‘Invisible Actors(보이지 않는 배우들)’은 그의 이러한 태도를 집약한다. 그는 사진 속 모든 사물을 ‘배우’로 인식한다. 무대 위에서 보이지 않지만 연기를 수행하는 존재들.

이는 그가 최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공연 무대 연출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 조경재에게 무대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배우의 움직임과 신체를 규정하는 환경이다. 이런 인식 하에 그의 피사체는 사물과 공간이 신체적 반응을 유도하는 구조로 틀을 갖춰간다.

“사진 속 사물들은 저의 의도와 빛의 연출에 따라 화면 안에서 연기를 펼칩니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역할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흡사하죠.”

사진은 그에게 폭력적인 매체이기도 하다. 실제 공간에서 시간성과 신체성으로 추상회화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지만, 사진은 그것을 단번에 압축해 버린다. 모든 시간과 과정은 사라지고, 한 장의 평면만 남는다. 조경재는 사진의 이 폭력성을 매력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부분 대형 카메라로 아날로그 촬영을 한다. 심도를 깊게 유지하기 위해 오브제는 실제 사진보다 훨씬 크게 제작된다. 이는 기술적 선택이면서 동시에 미학적 판단이다.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일 때, 사진은 회화처럼 인식된다. 흐려짐이 사라진 이미지에서는 사진적 효과보다 표면과 물성이 강조된다.

피사체를 연출적인 기법으로 구축한 후, 사진으로 촬영하는 그의 작업에서 짙은 회화성이 드러난다. 실제로 그는 회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 특히 “화면 속을 지나간 작가의 신체적인 행위”는 그의 관심사다. 회화적인 요소는 그의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조경재의 작업은 화면을 조직하는 방식에서 회화적이다. 그는 대상이나 이미지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시선이 머무는 지점과 흘러가는 경로를 치밀하게 설계한다. 이는 원근법, 프레임, 여백과 밀도의 조절 등 회화가 발전시켜 온 조형 언어와 맞닿아 있다.

또한 색과 톤, 명암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 인식의 층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회화와 맥을 같이한다. 색은 표현의 수단이기보다 감각을 조율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빛과 어둠의 대비는 대상의 실체를 강조하기보다 이미지가 떠오르고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한다. 이는 회화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재현과 비재현 사이의 긴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어가는 지점이다.

그의 작업을 하나의 일관된 궤적으로 묶는 것은 ‘보는 법’에 대한 집요한 사유다. 이런 태도는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감상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는 이미 완성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작업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신체적인 행위의 흐름을 화면에 쌓아가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감상자 역시 그가 그랬듯 작가의 시선이 아닌 감상자 자신들의 시선과 감각으로 작품과 마주하기를 바란다. 전시는 내년 1월 10일까지.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황인옥